광주·전남 4곳 글로컬大 '막차' 타나…예비 지정대학 선정

교육부, 전남대·조선대·동신대·목포해양대 등 전국 18곳 예비 지정…9월 최종 선정

전남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통합) 등 4곳이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4곳을 포함한 총 18곳(25개교)을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컬(Glocal, Global+Local) 대학 30'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0개 글로컬대학을 선정했으며, 목포대와 순천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도 예비 지정된 18곳의 실행계획서를 평가한 뒤 오는 9월 10개 이내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가 마지막인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신청에는 총 55곳(81개교)이 지원해 37곳이 탈락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사실상 막차를 탔다. 앞서 전남대와 동신대는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 최종 탈락했고 조선대 등은 올해 처음으로 입성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지난해 제시한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을 이어가면서도 추진계획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 지정 자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단독이 12개, 연합과 통합이 각각 3개다.

지역별로는 충남 3곳, 광주·대전·부산 각 2곳,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 각 1곳, 초광역 3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지정 단계에선 혁신성에 주안을 두고 평가했다"면서 "본지정 때는 기존에 지정된 대학의 지역 분포를 고려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8월 초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지정 평가는 오는 9월 종료된다.

이번에 예비 지정대학에 포함된 광주·전남지역 대학 4곳은 AI 융합 및 창업, 지역사회·산업계와 협력 등을 골자로 한 혁신기획서를 글로컬 대학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남대는 '인공지능(AI)이 살리는 문화인문, 문화인문이 키우는 인공지능'이라는 모토로 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AI 융합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선대는 광주시와 지역사회·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청사진을 내세웠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웰에이징 특화 전략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등 3대 특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기반 교육혁신과 연구인프라 고도화를 제시했다. 조선대는 조선간호대학교·조선이공대학교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며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총괄총장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탄소중립 스마트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반산업을 살리는 지역 공공형 강소연합대학 UCC(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 혁신모델을 제시했다.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초광역 통합은 전남과 부산이라는 동서해양도시의 해양교육 역량을 결집, 1국 1해양대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해양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예비지정은 조선대가 단순히 대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며 "본지정 평가까지 모든 구성원과 힘을 모아 반드시 글로컬대학 본지정의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지자체, 지역대학 혁신 돕는다

17개 대학과 '라이즈' 협약…인재양성 비전 공유 등 협력키로

광주시가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 17개 지역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17개 지역대학 라이즈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협약에서 2025년 광주 라이즈 사업 공모를 통해 수행 대학으로 선정한 17개 지역대학과 지역혁신 및 인재양성의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 교육부에서 배정하던 대학별 지원금을 광역지자체에 배분해 자치단체와 대학이 지역 맞춤형 혁신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17개 지역대학은 라이즈 선도모델 구축 및 성공적 사업 수행, 성과 창출 및 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서 4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지역대학을 공모했다.

광주 라이즈 사업은 '지역-대학 함께 업(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교육·산업·문화·복지·정주를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프로젝트는 인재 스킬업(SKILL UP), 기업 밸류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대학 이노업(INNO UP)이다. 이들 프로젝트에 17개 지역대학이 참여해 총 62개 과제를 수행한다, 총 사업비는 749억1000만원이다.

광주시는 협약식에 이어 '2025년 제3차 라이즈 위원회'를 열어 라이즈 사업비 집행기준안, 사업협약 기간 적용안, 전담기관의 사업참여안, 단위과제 성과지표 변경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라이즈 위원회'에서 의결한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 과제 추가공모 실시안에 대해 5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3개 컨소시엄, 24억원 규모의 수행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창포물에 머리 감아요 전통 명절인 단오를 나흘 앞둔 27일 광주시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에서 아이들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있다. 옛 선조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창포 특유의 향기가 나쁜 귀신을 쫓고 머리에 윤기가 난다고 믿어 단오 날에 창포에 머리를 감아왔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2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출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2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이 새롭게 꾸려졌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와 제 2기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갖고 특별법 시행에 맞춰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둔 특별법과 관련, 관계법령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유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은 지난 17일 유가족 총회를 거쳐 출범돼 유가족 의견을 수렴, 당국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이날 유가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전남도에 감사를 표하고 참사 이후 경과와, 향후 유가족협의회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김유진 대표는 "새롭게 출범한 제 2기 대표단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유가족 지원과 치유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남도의 변함없는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농업박물관 "31일 단오 체험하세요"

선착순 70명 모집…참가비 무료

잊힌 명절인 단오(음력 5월 5일) 행사를 체험할 자리가 마련된다.

27일 전남도농업박물관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박물관 내 쌀 문화관 일대에서 '2025 단오 민속 체험행사'를 연다.

모내기를 끝낸 즈음에 맞는 단오는 다양한 놀이와 음식을 즐기며 풍년과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했던 명절로, 박물관측은 당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단오의 유래와 민속 교육 뿐 아니라 수리취떡 시식, 창포 비누 만들기, 창포 머리 감기, 다양한 한복 입어보기, 가체 써보기 등 체험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 전남도농업박물관 누리집에서 7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오존 농도 '나쁨'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전남과 서울·경기 북부 등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와 눈 등 감각기관에 악영향을 준다. 호흡기 질환자와 어린이, 노인 등 취약층은 오존 농도가 높을 땐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28일 오후엔 전라 동부권에 5~10㎜ 가량의 소나기가 오겠다. 광주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